

能力爲主, 技術專門職

우대사회는 先進化의 지름길



정 남 식

농 산물과 금융시장, 각종 서비스 시장에 이어 교육분야에 이르기까지 시장 개방확대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급변하는 국제화 추세에 대비하여 高附加價値 技術優位 競爭力提高가 절실한 오늘날의 現實을 直視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우리 모두가 어떻게 對處하는 것이 지름길이며 적어도 10년 이후의 사회구조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 한가지의 專門技術資格證이라도 취득하고자 하는 지혜와 꾸준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重要함을

---

약력 : • 65~70 육군본부 관리참모부 • 72~75 육군연구발전사령부 • 77~82 시스템엔지니어링 (주) 대표이사 • 80~97 대한전자계산연구원(대한정보처리학회) 원장 • 현재 한국정보과학회, 한국경영과학회 •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자문위원장

깊이 認識하여야 하겠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은 오늘날과 같이 全世界가 同時生活圈 속에서 職業의 多樣化와 專門化의 必然性으로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새로운 技術開發情報가 洪水처럼 터져나오는 現 社會에서는 「매일같이 江山이 變한다」라고 하여도 어색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은 100Km 이상의 속도로 高速道路를 달리는데 나 자신만은 꾸불꾸불한 구도로에서 아무리 달려보아야 승산없는 경쟁을 하는 느낌이다. 우리나라는 GNP 3만불이 넘는 美國이나 日本에 비하여 6천불에 불과할 뿐 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도 15년 정도 뒤졌다는 것이 국제적인 定評이다. 국민의 意識構造 측면에서 一般國民은 물론, 國家公務員들의 멸사봉공 정신이 희박하며 빤짝이식 成果主義나 人氣主義, 한탕主義로 먼 훗날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밖에 없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價値와 보람을 함께 잃는 缺課만이 남을 뿐이다. 生産性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日本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KDI의 분석결과가 뜻하는 바를 음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共同이 아닌 個人的인 利益事業의 生産性은 先進國水準이라는 評價와 GNP는 後進國인데 반하여 소비성은 先進國이라는 評價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묵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와 같이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국민의 大多數는 큰 長點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근면成과 知的바탕의 잠재력으로서 先進國들이 우리나라를 견제하면서도 無視하지 못하는 要因이라 하겠다.

필자가 우리나라에는 컴퓨터나 教育機關도 없던 '60年代 中반 美國陸軍通信學校에서 ADPS 기획 및 SA 과정을 修學中 公務員, 企業人, 教育者, 職場人등 여러 계층별 家庭의 초대를 받은것을 계기로 미국사회의 意識構造와 職業觀 및 大學進學問題등을 관심깊게 살펴본 적이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유한 집안이며 고교성적도 좋은편 이었는데 대학진학 대신 직장에 나가 기술자로서 돈을 벌겠다는 학생이 의외로 많았으며 또 하나 놀란것은 父母의 子女에 대한 간섭 한계로서,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父母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能力이나 資格證보다는 學力重視風土下에서 成果給이 아닌 能力을 무시한 均等給與制度를 적용하므로써 生産性이 落後되고 中後進國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였는다고 한다. 그러나 늦게나마 우리나라도 能力위주, 기술우위정책 전환을 위한 법제화와 意識改革運動이 전개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公式職種을 1756種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대우문제와 활동범위, 인력수급의 확산 및 전망등을 감안할 때 컴퓨터 이용기술분야등이 가장 有望職種으로 전망의 대상이 되리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先進國隊列에 合流하기 위해서는 朝令暮改式 教育政策부터 확고하게 바로 잡지 않는한 요원하다고 느껴진다.

특히 國家技術資格證 취득으로 해당 學力을 認證받는 社會教育法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전국 대부분의 私立大學에서 다양하게 운영되

고 있는 부설 전자계산학원 또는 사회교육원의 가려진 問題點은 100年大計의 國家的教育政策次元에서 그 改善策이 切實하다고 본다.

따라서 科學技術 崔優先政策의 일환으로 人文對 實業系列의 6:4 비율부터 조정되어야 하며 人文系 專門大學을 대폭 신설 또는 학과와 정원을 증설하여 올바른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능력위주 자격증우대사회의 촉진책으로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國家公認 技術資格法의 근본취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널리 홍보인식 시켜야 할 것이며 국민의 意識構造가 뿌리 내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화 경쟁사회를 맞이한 오늘날, 實效性爲主 社會教育法 및 制度의 과감한 補完改善으로 무자격자와 물질만능주의자의 난무현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Venture 기업의 국제화 시장 개척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國家産業振興政策과 더불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우대, 無勞動無賃金, 成果中心結果論을 바탕으로 일시불란한 政策을 펴 나갈때 우리나라는 스포츠 強國만이 아닌 名實相符한 先進國 문턱에 들어서리라 確信한다.